

S - 16

## 디지털 덴탈 이미지의 관리와 임상활용 - 간편한 임상 디지털이미지의 편집



김 용 성 (한마음치과원장)

|         |                           |
|---------|---------------------------|
| 1988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1993~   | Dental Image의 Digital화 연구 |
| 1997~현재 | 한마음치과의원                   |
| 2002~   | 인천시 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
| 2000~   | 디지털 관련 강의 40여회            |

바야흐로 치과임상에도 디지털카메라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촬영 즉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디지털의 매력은, 신속한 영상취득과 이를 디스플레이 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많은 임상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촬영 → PC 전송 → 디스플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화질 저하없는 고해상도의 임상이미지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하며, 환자 설명용으로, 그리고 치료계획수립을 위해서도 유용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임상에서 활용할 때, 간단한 편집 작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이미지의 테두리를 다듬기도 하고(trimming, crop), 미러를 사용한 구내사진인 경우에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뒤집기(horizontal/vertical flip)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안모사진을 web이나 잡지에 공개할 때 환자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한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가려주는(black eye-masking) 작업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이미지의 일정 위치에 치과 로고를 붙이거나, 촬영 날짜를 덧씌우는 일(text/date overlay)도 종종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작업들로는 resize, rotation, red-eye reduction 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으로 필요한 편집은 포토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다.

포토샵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의 바이블로 인식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에 숙달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자의 경우는 임상사진의 편집을 위해서, 새롭게 포토샵을 배울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1~2시간 내에 아주 쉽게 배워서, 바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프로그램인 ACD FotoCanvas를 소개하려고 한다.

치과 디지털이미지의 손쉬운 편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size (해상도 변경)
2. Flip (뒤집기)
3. Rotation (회전)
4. Crop (=Trimming, 오려내기)
5. Level (밝기/대조도/감마 조절)
6. Black eye-masking (눈가리기)
7. Text/Date overlay (글씨/날짜 입력)
8. Line (선 그리기)
9. Red-eye Reduction (빨간 눈 제거)